

# 북한개발소식

# 06

2020 June

통권 176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대비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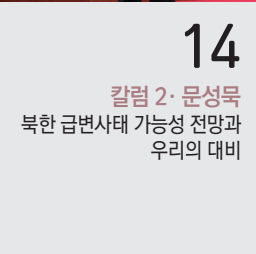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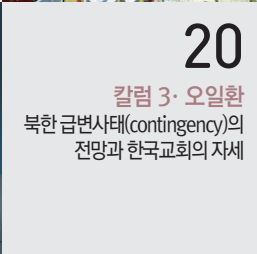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June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대비

|                                                                                                                                                   |                                                                                                                                                                       |
|---------------------------------------------------------------------------------------------------------------------------------------------------|-----------------------------------------------------------------------------------------------------------------------------------------------------------------------|
| <br><b>01</b><br>권두칼럼<br>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br>이해와 선교적 대비             | <br><b>09</b><br>칼럼 1· 유관지<br>“등불이 준비됐느냐”                                           |
| <br><b>14</b><br>칼럼 2· 문성묵<br>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전망과<br>우리의 대비        | <br><b>20</b><br>칼럼 3· 오일환<br>북한 급변사태(contingency)의<br>전망과 한국교회의 자세                |
| <br><b>25</b><br>칼럼 4· 강철호<br>격동의 시대 교회가<br>통일을 어떻게<br>준비할것인가? | <br><b>30</b><br>탈북민 수기<br>신앙의 자유를 찾아(15)<br><br><b>34</b><br>북한 뉴스                |
|                                                                                                                                                   | <br><b>38</b> 서평<br>기독교와 통일 그리고 북한<br>(12개 주제로 생각하는)<br><br><b>40</b><br>북한 기도 제목 |

얼마전 김정은 건강 문제로 인한 해프닝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 수술 후 위독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여러 설왕설래가 며칠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할 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추측을 곤두세웠다. 정치, 경제적 측면만큼이나 선교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번 뉴스를 통해 이러한 급박한 변화 상황에 대한 교회와 선교 차원의 대책이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공식석상에 나타나면서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일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넘기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도자의 신변과 정권 변화 또는 붕괴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20일 만의 공식 활동 재개이다.〉

그렇지만 실제 발생시 대응의 문제가 크다 보니 관련 연구나 시나리오 분석이 학계나 정부나 기업 등 여러 주체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또 과거에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 속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기도 있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나 몇몇 이들을 통해 재기된 백두산 화산 분화 우려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도 급변사태와 연관될 수 있는 또는 급변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급변사태의 양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선교 현장의 대응과 우리 교회의 대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 북한 급변사태란?

급변사태(Sudden Change)란 용어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는 대체로 정권 붕괴와 같은 북한에서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통치 행정력의 마비상태나 군지도부의 통제력 약화와 체제이반 현상의 무정부 상태 등이 꼽힌다.

이대성은 문헌 연구 등으로 통해 학자들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를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sup>1</sup> 이는 각각 1) 북한주민의 소요사태가 체제 붕괴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2) 한국과 미국의 안보목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내부상황 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안보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3) 기존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규모의 내부 불안정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나,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 또는 확대되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 4) 다양한 국가비상사태 중에 북한 정권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어서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사태 등이다.

1 이대성 (2017)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2: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7(4), 48.

김관호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sup>2</sup> 첫째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 악화로 인한金正은의 실각 및 정권 붕괴로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둘째로는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규제 철폐 및 일부 자본주의 요소 허용으로 북한 정권의 통제 불능 상황이 발생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다. 셋째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쿠데타 발생 상황이다. 넷째는 외부 군사적 공격에 의해 붕괴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핵무산 화산 폭발 등 북한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급변사태란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등으로 기존 북한 체제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공황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급변사태의 원인은 리더십 관련 이슈, 민중들의 집단적 움직임, 경제난, 대량난민, 자연재해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 등을 가정하고 있다.

기존의 급변사태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사태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민중 봉기 등 사회 밑바닥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정치, 경제, 군사적 이슈 관련하여,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 입장

2 김관호 (2016)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학보 41(2), 17-22.

에서는 북한 사태의 가장 중요한 관계자가 한국이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동질성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개입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북한 관련 한국이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겪고 체제도 다른 타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거기에 체제적 유사성을 가진 중국의 개입 역시 강하게 점쳐진다. 이런 배경 속에 혼란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그 외 유엔의 개입 여부, 한국이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보호책임(R2P)<sup>3</sup>등 국제 규범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의 연계 가능성 및 체제 붕괴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한 고민도 있다.

### 급변사태에 대한 선교적 대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최선은 아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급변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라면 바로 유사시 가능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

3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RtoP)이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2005년 유엔에서 사무총장보고서와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 상황에 대한 보호책임이 채택되었고, 이후 그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교회가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긴급 구호 및 지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사태 이후 수습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중단되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북한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 논의가 가시화된다면 성경적 기준과 가치가 통일 한반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 이슈는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 직후에는 무엇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구제와 구호 활동이 필수적일 것이다. 공식 부분을 보자면 교단과 기독교 NGO 등의 민간 지원 루트를 통한 지원 활동이 될 것이다. 고난의 행군 등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NGO들은 식량, 의료, 보건, 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섬겨왔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급변사태가 발생시에도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북한을 향한 공식적인 인도적 지원활동이 2010년대 이후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역 공백이 있고,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인도적 지원 루트는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유사시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면 혼란상황 속에서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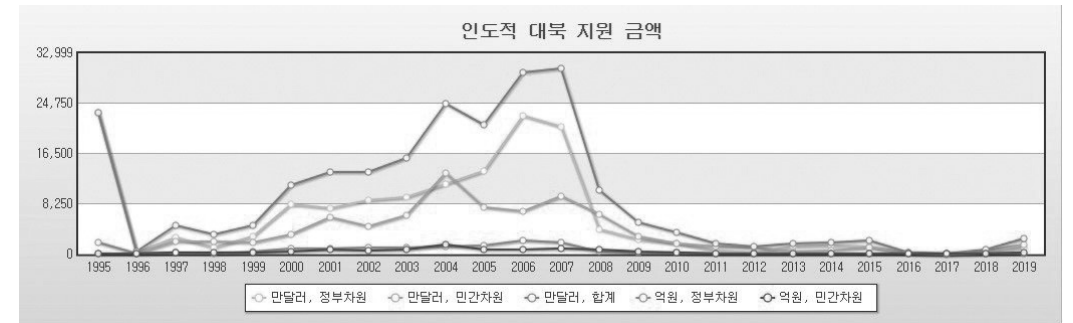
〈2012년 9월 한국의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대북 수해지원 일가루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한 민간 차원의 관여를 유지함으로써 적시에 필요한 구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주체가 모호해지거나 혼란 속에서 인도적 지원도 외부의 개입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급변사태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과 통제 약화를 가져왔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기해보면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식량 지원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필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매치되지는 않았다. 통계청의 대북인도적 지원금액 통계를 살펴보면 북한의 지원요청해인 95년도를 제외하면 사태 초기에는 대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00년대 초부터 점차 증가해서 2007년에 최고를 찍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를 보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필요가 가장 높았던, 굶주림이 심했던 90년대 중후반의 지원보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었던 2000년대의 지원이 원활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식 지원 활동은 현장의 필요보다도 여러 정치, 외교적 요인의 개입이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급변사태는 북한 체제의 불안을 전제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길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

다시 고난의 행군 시기를 회상해보면 공식적인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수습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강을 건넌 탈북자들의 물결이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있었다. 그리고 강변에 있던 동포들, 특히 교회들과 중국에 선교사로 나왔다가 이 사태를 접한 선교사들이 이들을 돕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처음에는 여력이 되는 데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이윽고 국경지역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남한 교회와 연계하여 안전교육과 보호처소 등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특히 대량 난민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인 구호와 구제 활동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기독교계의 북한 사역 기반이 공식적, 비공식적 분야 막론하고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역 루트는 공백기가 길었고 현재도 제약이 심하다. 여전히 북한이 남한발 지원 사역에 미지근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많은 단체들이 외국에 별도의 기관을 두거나 협력하지 않고서는 대북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 이후 남북 화해무드 형성과

북미 대화 성사로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한의 입지가 애매해지고 덩달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등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지원 환경도 전에 비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강을 건넌 탈북자들에게 조선족 동포 교회는 생명줄과 같았다. 북한 내에서도 강을 건너면 교회 십자가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동포들을 도왔다. 또한 공산권 붕괴 이후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나아갔고, 그 중 상당수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사드 분쟁 이후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고, 탈북자의 수도 급감하였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강변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을 막는 철조망과 다양한 감시 장비, 다수의 초소를 운영하면서 국경통제를 강화한 것도 탈북자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게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 교회에 대한 탄압 및 활동 제한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선족 교회들의

경우 북한 관련 사역을 절대 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감시와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 연금 또는 생활비 지원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일이 중국 교회 박해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고령자 위주로 출석하는 시골 조선족 교회에게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일정 규모 이하의 교회에 대해서 폐쇄를 종용하여 상당수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외진 지역인 조중국경 인근 지역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경제 문제로 인한 이주와 한국행 등으로 도서 지역 조선족 공동체가 위축된 것도 90년대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장애 요소는 현재 진행되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사역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급변사태 발생 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급변사태 논의를 선교 현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급변사태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고 그 발생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태 발생을 예상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공식적, 비공식적 구호 활동 역시 그러한 기반의 문제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그 기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려움을 겪는 현지 동포 교회를 강하게 하고, 다양한 전

문 NGO 사역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급변사태와는 별개로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역의 진행이 어렵고 당장의 열매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사역의 침체, 더 나아가 선교 기반이 약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 대신 ‘투자’,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준비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제안한다. 성과라는 측면에서 분명 대북 선교 사역,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역은 비효율적이고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역이다. 줄어든 월경자들, 중국내 탈북자들을 향해 더욱 강해지는 감시와 탈출 루트 차단, 계속된 선교사 추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풀릴 듯이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여기에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통제 강화 등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교사들의 사역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NGO 활동도 마땅치 않다.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들이 파송 선교사나 대북 NGO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제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계속 개발, 논의되고 있으며 사역의 열매는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사역 자체는 여전히 지속, 발전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역의 경우 비록 남북간의 교류는 막혀 있지만 외국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의 활로를 찾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도 선교사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간 북

한 여성들, 생계 곤란으로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에 보던 그러한 규모가 아닐 뿐이다. 전과 같은 성과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사역자나 선교사의 안전을 이유로 지원 중단 및 철수 종용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개척했던 사역의 기틀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씨를 뿌리고 심는다는 마인드로 현장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 기업들도 미래를 대비하며 각종 R&D 투자 및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이러한 시도가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있다. 세상 경영의 논리도 이러한 진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선교를 위해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함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비록 사역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해야 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논쟁을 교회로 가져와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에 몰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이야기하다보면 정치적으로 흘려갈 때가 많다. 북한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붕괴론적 관점을 주장하고, 반대측에서는 고난의 행군으로도 무너지지 않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허황된 붕괴론에 몰두하기 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두 의견 모두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동포를 구제하고 민족복음화를 성취해가는 선교 기반 확립을 바탕으로한 대비와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동안 세계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여부에 대한 논의에 관심 갖는 것에 비해 현장의 목소리는 소외되어왔고, 실제 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다.

### 결론

성경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잠에 취해 정작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부족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비유는 주로 주님의 다시오심과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로 이해되지만 북한 선교 현장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실지, 또 우리가 바라는 복음적 평화통일과 한반도 복음화의 때가 언제일런지 우리로써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유의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세워 신랑을 기다렸다. 다만 피곤함과 게으름, 그 외 짐작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으로 기름을 준비하는데 소홀했을 뿐이며, 그 대가는 너무도 막대했다. 한국의 교회도 동



일한 도전이 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통일도 기약없어보이는 가운데 점점 선교현장이 옥죄어지는 상황에 회의감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금방 온다고 했으면 기름을 당연히 준비했겠지만, 생각보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고 피곤이 쌓이는 가운데 졸다가 잠이들었던(마 25:5)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마 25:13)는 권면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과 한반도 복음화의 때가 올 것을 믿고 부르짖어왔다면, 그에 맞는 선교적 노력과 준비를 통해 실천으로 그 믿음을 실체화 하는 것,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이와 관련된 급변사태 논의는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

갈 때 선교적으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는 시험대로 받아드리면 좋겠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회가 북한 선교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적, 비공식을 막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선교적 기반을 확대하며 믿음으로 받을 가는 귀한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 “등불이 준비됐느냐” ‘급변사태 이후’에 대한 방략(方略)이 중요하다

유 관 지 (NKC연구원 원장)

### 북한 문제, 차분하고 냉정해야

올해의 4월은 ‘술렁술렁의 달’이었다. ‘술렁임의 달’이라고 하지 않고, ‘술렁술렁의 달’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술렁이고 있는데, 북녘 통치자의 유고설이 남녘, 나가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그 진원(震源)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기관이어서 처음부터 파장의 진폭(振幅)이 컸고, 여기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민 두 분이 단호한 어조로 단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술렁임은 극대화되었다.

이 술렁술렁거림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망스러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5월 첫날에 막

을 내렸다.

1986년의 가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아니 이것보다 더 컸던 일이 있었다. 느닷없이 김일성 주석이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국내의 한 일간지가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라는 제목을 달아 호위를 발행했다. TV는 낮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이라 큰일이 생기면 신문사들이 호위를 발행했는데, 여담이지만 이 호



〈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를 통해 발행된 호위. 군 통신 감청 간에 생긴 오류로 인한 오보로 알려져있다.〉

외가 나간 날 저녁에 소주 판매량이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고 한다.

그때 필자는 어느 방송사의 현업부서의 책임자였었는데, 이상하게 그 호외에 마음이 당기지가 않았다. 한국 언론의 지병 가운데 하나가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이라는 생각이 자꾸 났고, 86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끝낸 일과 88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국사회가 너무 들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려서였다. 그래서 사무실 칠판에 “김일성 사망 문제를 단정적으로 방송하지 말 것”이라고 써 놓았는데, 덕분에 요즘 말로 하면 ‘엄지척’을 많이 받았다. 그때 한 일간지는 고심 끝에 “김일성 피살설”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김일성 피살설”이라고 제호를 달았다. 그 한 글자 덕에 그 신문의 편집책임자는 다음 해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유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사실 김 위원장의 유고설은, 태양절 행사 불참, 몇 주간 계속해서 동정이 파악되지 않음, 평소에도 건강관리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음, 가족 병력(病歷), 이른바 ‘백두혈통’들의 갑작스러운 부상(浮上) 등, 그런 소문이 날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이유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고설을 말한 분들에 대한 공박에 열을 올렸다. 이 역시 경망스러운 모습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전화를 주신 분들에게 그 소문이 근거가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1986년의 추억’ 때문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곤 했다. 이것 역시 여담이지만, 「북한개발소식」에서 보내온 원고청탁서에는 필자의 그

런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편집자가 그런 인터뷰 내용을 읽고 ‘이 사람에게 원고를 청탁해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우리는 좀 차분하고,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사 그래야 하지만, 북한문제는 더욱 그래야 한다.

### ‘역(逆)급변사태를 맞았군!’

1990년대 후반부터 종종, 아니 자주 나오던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말이, 이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머리를 들었고, 나돌아다녔는데, 급변사태라는 말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들뜬 흥분은 역시 금물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북한의 붕괴, 그리고 남한주도의 흡수통일로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대로 될까?

북녘은 그동안 ‘급변사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김정일 사망 모두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나 북녘은 이런 일들을 잘 수습하고, 극복해냈다.

북녘에 자체의 힘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급변사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UN이 어떤 역할을, 예를 들면 UN주도의 국민투표 같은 것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가만히 있을까?

통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세미나에서 한 발제자가, 북한 붕괴 이후 강대국들이 북한을 분할 통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일이 있었다. 그 발제자는 나라별 통치 예상 구역을 색으로 구분해서 제시했는데 강렬

한 여러 색의 잔상(殘像)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었다.

북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전에 ‘북조선성(北朝鮮省)’, 또 ‘동북4성’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이 말이 의외로 널리 퍼져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동북4성’은 기존의 동북3성인 길림성·요령성·흑룡강성에 북녘이 합해진 것을 말한다.

십여 년 전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발표된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소설 Blue Bird」(전2권)는 북한에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1권은 2005년에, 2권은 2009년에 발간되었다. 저자는 200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에 김정일이 불참하여 많은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고 2권을 쓰게 되었다고 2권의 머리말에 썼다. 북녘은 이 소설에서 작가가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이 책은 북녘의 권력구조나 병력 문제 등이 치밀하고 사실적이어서 아주 생생한 느낌을 주며 독자를 빨아들였다. 책을 읽으면서, ‘북녘을 상대로 일을 하려면 북녘에 대해, 이 정도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몇 번 중얼거렸다.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소설은 더 강한 것을 느끼게 했다. 책 뒤의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2011년 5월 9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여 장장 63년간의 민족 분단을 종식시켰다는 설정 아래 나는 어느 전대미문의 인민군 출신 폭력 조직의 내부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로부터 이 소설을 풀어 나갔다.”라고 했다. 이 소설은 ‘대동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력 조직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260쪽이 넘는 분량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한 소녀가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기 공장의 사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를 비판해 유서를 적어 두고 자살했다. 태양절을 맞아 술을 마시며 향수를 달래던 호위사령부 출신 친목 단체가 이 시의적절한 뉴스를 접하고는 격분을 못 이겨 경찰서를 습격, 방화한 것이 폭동의 시작이었다. 정부는 계엄령 선포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리강(주인공: 필자 주)은 운전석에서 밖으로 비틀거리며 내렸다. 강가였다. 리강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본 것은 사방을 점령하고 있는 안개였다.”라고 끝을 맺는다.

아 책을 덮으면서 ‘북녘의 급변사태를 몇 모르고 좋아하다가 남녘이 역(逆)급변사태를 맞았다는 이야기로군!’ 했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치밀한 준비와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초월론 통일론’을 말한다.

‘통일이 과연 될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흔하게 받는 질문인데, ‘어려울 것이다’ ‘한참 뒤에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 요즘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구체적으로, 연방제, 연합제 등을 말하기도



〈독일 통일은 당사자인 서독 정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뜻밖의 일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에 몰려든 동독 주민들이 벽을 허물고 있다〉

하는데 필자는 이런 것들을 ‘이성적 통일론’ ‘합리적 통일론’ 또는 ‘점진적 통일론’ ‘단계적 통일론’, 이렇게 부른다.

이런 주장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자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초월적 통일론’이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았던 방법과 모습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말장난이 아니냐고 비웃음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내놓는 불변의 소신이다.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그랬고, 가나안 진입이 그랬고, 포로에서의 귀환이 그랬다. 가까이 30년 전의 독일 통일이 그랬고, 31년 전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더욱 그랬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 초월적 통일론의 한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다.

초월적 통일론이라고 해서 통일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발을 땀 흘리며, 꾸준히 갈아나갈 때 통일이라는 진주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교회는 ‘북한선교’ ‘북한복음화’ ‘통일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다. 통일선교가 한국교회의 숙명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단

체들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일과 관련된 앞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한국교회는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 통일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만일 그것이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형국으로 연결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자,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북녘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홍빛 가정을 해 보자.

북녘의 동포들은 분단 직후부터 반종교교육을 받아왔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할 효과적인 방략이 세워져 있는가?

북녘의 통치이념은 ‘인간이 모든 것이 주체이다’로 요약되는 주체사상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라고 가르칠 준비는 되어 있는가?

북녘에 선교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분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그것을 보면서 북녘동포들은 ‘오, 종교란 것은 우리가 교육 받은 그대로 해로운 것이로군!’ 할 것이다. 경쟁 대신 양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일이 있는가?

이단들의 문제도 크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의 탄탄한 조직과 교세에 대해 많이들 놀랐을 것이다. 그들이 그런 역량을 북녘에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부모님교단(통일교의 새 이름)은 이미 북녘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 오산학교가 있던 곳!’, 북녘의

지역교회사를 잘 아는 분들은 ‘선교사들의 개입 없이 토착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나간 곳’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문선명의 출생지인 정주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부모님교단의 베들레헴이 되어버렸다. 이단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990년대 후반에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지속되지 못했다. 돌이켜볼수록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통일 이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한다. 신명기를 일반적으로 광야생활 회상기라고 하는데 신명기에는 복지생활을 대비하는 내용이 더 많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5경 전체가 그렇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통일선교에 대한 우리의 모세5경, 특히 신명기를 기록해야 한다. 필자는 통일 이후에 필자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꽃돌 세우기’로 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이 「북한개발소식」 2013년 3월호에 “꽃돌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일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온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은 더디 왔다. 마치 통일이 지

연되고 있는 것과 같다.

드디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마 25: 6)는 소리가 들렸다.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비유를 바탕으로 하고 만들어진 찬송가 175장은 매 절이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175장의 후렴은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이다. 우리는 통일의 등불을 예비하고 예비해야 한다.

초월적인 힘의 주인인 하나님이 머잖아, 반드시 주실 통일을 맞을 등불을 준비하자.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자. 우리에게 주어진 급한 과제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전망과 우리의 대비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 이라 함)의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면서 우리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지난 4월 20일 인터넷 뉴스매체인 데일리 NK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데 이어 다음 날 미국 TV 방송인 CNN도 이를 확인하면서 중태설, 식물인간설, 사망설까지 많은 설이 언론과 우리 사회를 뒤덮는 현상이 나타났다. 20여 일 만인 5월1일에 김정은이 건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 일을 계기로 김정은 유고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김정은 건강 이상설 오보,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북한 핵심권력층에 대한 오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 시대 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전례가 있다. 1986년 김일성의 사망설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발각 뒤집힌 일이 기억난다,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그의 부인인 김경희(김정은의 고모)에 대한 사망설이 제기된 일도 있었다. 그만큼 북한이 폐쇄된 체제이며,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조적으로 최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경우, 자신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이후 그의 동선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자가격리로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회복되어 정상업무에 복귀하는 모든 과정이 일일이 보도되었다. 정권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체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 즉, 오보를 양산한 언론과 일부 인사도 문제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성과 경직성, 기만성이 더 큰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김씨 독재체제의 극명한 차이가 대비되어 씹쓸하다.

이번 사건에서 김정은의 행태와 건강상태를 볼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 우선 김정은은 2012년 이후 매년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에 금수산 궁전의 참배를 단 한



〈왼쪽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신체의 변화가 뚜렷하다. (출처: 연합뉴스)〉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이 4월 11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이후 잠적하였고 15일 참배 장면이 보도되지 않았다. 당연히 그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등장 이후에도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일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그가 잠행한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그의 움직임에 대한 소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놀고들 있네“ 하면서 즐겼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김정은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키 170cm, 체중 130여 kg에 김일성, 김정일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이 복합되어 언제든 다시금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거나 실제 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

려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 이상설이 보도되면서 이제 관심은 그의 유고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렸다. 여동생인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북한의 남성중시 전통을 감안 시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이 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이다. 등등... 거기에다 통제 불능의 급변사태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제대로 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유고시 과연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만일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정치,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주된 위협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북한 급변의 위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김정은 유고 시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여부는 김정은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유고가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이 병사한다면 급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성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망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예측했지만 김일성 사망 26년이 지나고, 김정일이 죽은 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북한 정권은 건재해 보인다.

여기서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이 질병으로 자연스럽게 유고가 일어난다면 급변사태 발생보다는 권력승계로 이어질 것이다.(시나리오 1). 둘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면돌파전의 실패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고, 북한 정권 내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과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쿠데타 등 내부분열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급변으로 이어질 것이다.(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의 경우〉 앞으로 수년 내 김정은의 유고가 일어난다면 친여동생인 김여정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① 김정은의 친아들이 아직 어리고(10세로 알려

짐), ②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은 권력에 무관심하고, ③ 김여정은 이미 김정은 지근거리에서 권력을 보좌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데다가, ④ 금년들어 그녀 호칭에 ‘존경하는’ 수식어를 붙였을 뿐 아니라, 그녀 명의로 대남, 대미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하는 등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는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진 인물이며 백두혈통인 김씨 일가에서 곁가지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다. 특히 북한 권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노동당 핵심 권력층은 백두혈통과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이기에 어떻게든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만, 김여정이 승계한다 해도 김정은처럼 강력한 권력 장악은 제한될 수 있다. 김여정을 앞세우고 지금의 권력 집단들간 합의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북한은 현재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영변 핵시설을 내놓을 테니 2016년 이후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그의 꿈수가 통하지 않자 금년들어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자력경제, 자력부흥, 자력번영 등 자력갱생의 장기전을 선포하며 대내 결속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 육성연설에서 다시는 북한 주민

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열고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3월에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성공을 선포하고 경제발전 집중노선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금년도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그가 내세운 정면돌파전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겐가 전가시키려 할 것이고 불만 세력이 김정은 제거를 시도하는 등 갈등과 충돌 야기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현 정권의 강력한 감시 및 통제체제가 느슨해진 것을 가정해야 발생 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정치·군사적 위협양상은?

급변사태란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한다. 즉, 북한 정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혼란이 야기된 상태라 할 수 있다. 1945년 분단 이후 북한 내에서 이런 현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시나리오 2가 실제로 전개된다면,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칠 위협은 무엇일까?

우선 정치적 위협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 내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계획을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북한이 친 중국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를 중국의



〈김정은 유고시 후계로 거론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오른쪽).〉



영향력 아래 두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병력을 배치해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일, 북한 내 급변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어떤 명분이라도 내세워 단독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기회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북한 내 공산 독재체제가 계속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행복 추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의 개입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충돌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다음, 군사적 위협은 여러 가지를 상정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역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통제문제이다. 북한 권력의 구심점이 사라질 경우 WMD의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위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남측으로 유입되면서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통제력을 상실한 북한의 WMD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을 것이다. 한미가 연합대비계획을 수립해 온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 급변 시나리오들이 여럿 있지만, 여기서 이를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위에서 제기한바,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려 한다.

우선, 정치적 위협 대비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 내 친 중국세력들이 개입을 요청한다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급변 당사국의 요청 시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관리할 우선적 권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 설명하고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한 나라로 살아왔고 언어와 문화, 역사도 하나였음을 강조해야 한다. 분단 기간은 70여 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부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해야 한다. 동맹국 미국을 내세워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즉, 북한 급변시 한국이 동일 민족으로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함을 설득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 등 불이

익이 있음도 알려야 한다. 이런 조치와 함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북한 내 권력 엘리트와 주민들에게 한국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생존과 번영의 길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 친한 세력들을 지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다음, 군사적 위협 대비이다. 북한 내 WMD에 대한 대응은 미국 주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 관련 국제기구가 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즉, 통일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을 주지시켜 국제사회가 안심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고려하여 중국과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곳곳에 수용시설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전 주도세력이 주민들을 불법 학살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나, 관용할 경우 이에 상응한 보상한다는 점도 주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참에 한미연합대비계획의 점검과 함께, 남북군사통합을 위한 사전 조직과 제도, 관련 지침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비해야 한다.

## 교회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 : 올바른 현실 인식,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첫째, 정부가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갖도록 기도하자.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인식이 중요함을 알게 해 주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둘째, 현

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김정은의 유고가 급변으로 이어진다면 정치, 군사적 위협은 치명적이며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북한 주민들이 이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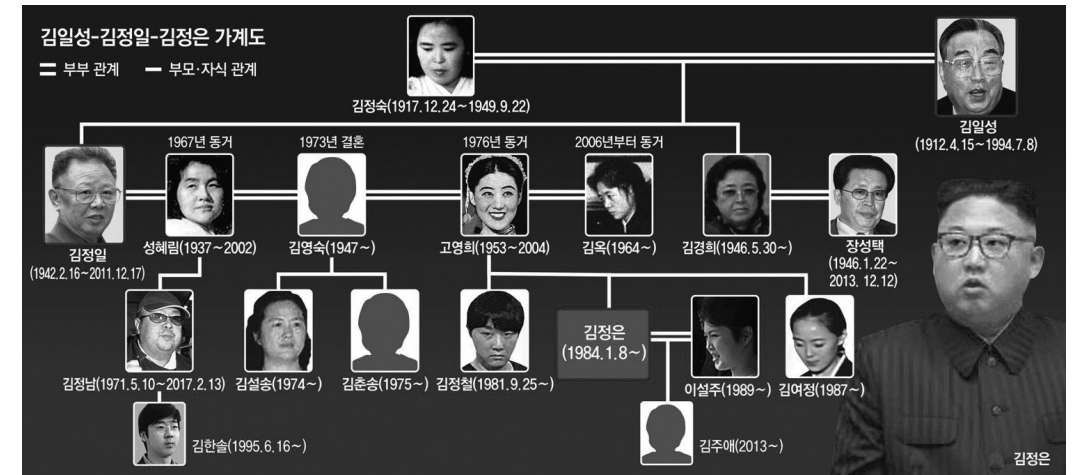
# 북한 급변사태(Contingency)의 전망과 한국교회의 자세

오 일 환 (한양대 겸임교수,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 만인 5월 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 전까지 김정은 와병설 또는 사망설 추측이 한동안 난무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체주의 일당독재 국가에서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령절대주의체제인 북한도 어느 날 국가 권력의 정점인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상황을 두고 볼 때, 과연 그러한지에 대한 예측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에게로 권력이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동안 확고히 구축한 신정체제와 왕조체제로 변신한 북한체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 그 내구력이 훨씬 강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령절대주의를 가능케 한 수령론에 덧붙여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당연시하는 후계자론이 더 보태졌기 때문에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행되었고, 연후에 김일성 유훈통치와 선군정치의 강화를 통해 확고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후계자론에서 말하는 후계자의 요건을 부연하면, 첫째, 수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의미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둘째,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 뛰어난 영도력 그리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셋째,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신, 넷째, 세대교체론 등이 포함된다. 이 네 가지 요건 가운데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 체현론을 거치며 혈통계승론으로 연결되었다. 혈통계승론은 김일성이 당 건설과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노정에서 창시하고 발전시킨 모든 혁명적 재부인 혈통을 후계자가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 단순히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 투쟁경험, 사업방



〈북한 김정은 백두혈통 가계도 (출처: 동아일보)〉

법 등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이 두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후계자로 옹립되었던 것은 김일성의 직계 혈통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자신의 세습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백두혈통’을 강조하였고, 김정은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듯이 자칭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백두혈통’에 기반하고 있는 김일성 왕조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이미 ‘김일성교’로 신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이처럼 ‘김일성 왕조’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생각보다 내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젊은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군부 쿠데타나 민란 등에 의한 정치적 대혼란이 초래될 경우 등에 의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김정은 유고와 관련한 급변사태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 ‘옹립’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른다. ‘백두혈통’ 가운데서 ‘왕조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권력 승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일성 직계 가운데 마땅한 후계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자녀들이 권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고, 형인 김정철은 스스로 권력의 곁에 다가가기 기피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여동생 김여정에게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남성 본위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팽배한 북한에서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에게 권

력이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당분간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되 당·군 지도자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권력투쟁이 표면화될 경우인데, 그 양상에 따라 순식간에 급변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증유의 큰 위기가 닥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김정은 유고 상황이 벌어져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대체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중국에 의한 단독 개입 가능성, 유엔에 의한 개입 가능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한 공동개입 및 다자 관리,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에 의한 개입, 한국 단독에 의한 개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독자개입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식이었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 북한 역시 UN 가입국인 데다 주변 4대 강국의 국력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자주의적 개입 역시 각국이 한반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적 유불리의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개입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형태로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개입에 맞서 대응하기에는 중과부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처하기에 든든한 백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 중국이 사실상의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조·중 상호우호조약의 자동 개입 요건에 따라 군사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다분히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제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엔헌장 7장에 명기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데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먼저 개입하고, 이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형태로 중국의 개입에 맞서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손망치한(臂亡齒寒)으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유엔에 의한 국제 경제제재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암암리에 다양한 경제적 지원으로 숨통을 열어준 것은 물론 북한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축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동북공정을 구축해 왔고, 북·중 국경 지역 군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해 왔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게 될 경우 동해안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북태평양으로의 커다란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랜드연 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박사는 정권붕괴와 정부붕괴로 구분하며, 김정은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대체되고,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될 경우에 외부의 개입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권과 정부가 붕괴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여 위성국가나 변방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단독 개입 상황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그리고 자신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



# 격동의 시대 교회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것인가?

강철호 (세터교회 담임)

할렐루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 예배는 물론 북한선교도 심히 위협받고 있는 지금, 교회가 위기속에서 복음통일을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사회적 위기속에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음에도 4월 북한 김정은 신변 이상설로 여, 야가 갈등하면서 그 희생물이 탈북민들이라는 현실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와 처음 선거를 치러보는 탈북민들이 좌파, 우파의 정치적 사상과 견해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사회의 남남 갈등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모습에서 현 정부가 말하는 평화통일이 무색하게만 느껴진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선거에서 두명의 탈북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그 감동도 잠시 이들이 김정은 사망설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탈북자

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주장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탈북자 당사자들은 늘 북한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탈북민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영호, 지성호씨가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정치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분단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복음뿐임을 더더욱 실감하게 된다.

코로나로 남북관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통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은 복음통일의 주역이 탈북민들임을 한국교회가 자각하고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당장 고민해야 한다.

현재 3만4천명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와 살고 있고 분명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사임이 분명하다.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것이 탈북민들의 다양한 북한과의 내통루트를 활용하여 우상숭배에 길들여진 북한동포들을 깨워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

비하는 지해를 발동해야 할 것이다. 세계 제일의 군사대국인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결코 중국에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한국과 미국, 양국 군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하에 상호 협력하며 혼란에 빠진 북한 지역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미군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는 일에, 한국군은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치중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두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는 남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중·러·일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다자주의적 개입을 추진하면서, 이 틀 속에서 예방외교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방외교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외교를 말한다. 한국은 예방외교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모색하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조기에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

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속히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접근법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열중할수록 북한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계망이 형성될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레 전파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 북한사람들이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개입에 대해 경계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로 나올 것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골든타임임을 영적으로 인지하고 교회가 대안과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대안과 전략이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앙안에서 갈등하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것인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됨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고 신념이다. 수년 전 서방 언론이 평양 축제에서 봉수교회 리성숙 전도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봉수교회를 교회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도 일기도 했다.

봉수교회 전도사 리성숙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종교인이자 기독교인으로써 "과학의 시대에 예수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 (당시 전도사) 인터뷰 화면 갈무리. 리성숙牧사는 조그런 출신 최초의 여성 목사로서 봉수교회 부목사를 지냈고 평양신학원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했다. 리성숙牧사는 1995년 봄,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축제 당시 외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늘 김일성 주석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한다"고도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신 김일성 신격화를 봉수교회에서 더욱 세뇌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북한 봉수교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의 신앙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제는 북한동포들이 모두가 기독교사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에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국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상의 세뇌속에 살아온 나자신도 탈북 초기 중국에서 만났던 조선족교회 목사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여 호기심에 밤을 새며 성경을 읽어 보았다가 실망한 때가 있었다. 성경이 마치 북한의 김일성 혁명 노작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이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법으로 간주된다면 김일성 혁명 노작에는 김일성의 일대기와 조선노동당 십대 원칙이 수록돼 있다. 이런 비교 때문에 한동안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김일성에게 한 번 속은 것으로 족하지 또 하나님께 속아야 하는가? 이런 갈등 때문에 처음 교회를 접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아니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신앙과 북한의 조직생활이 닮아 있음에 늘 비교가 되어 갈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김일성 혁명 노작과 조선노동당 십대 원칙은 김일성 사상 외 그 어떤 사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북한 온 사회를 김일성 주체사상화해야 한다는 절대적 절명의 사상이다. 이는 십계명의 첫째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기독교 신앙과 신통히도 닮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은 북한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전국 곳곳에 있어 주일성수는 물론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신앙의 영적 믿음을 키워간다면 이와 비슷하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혁명노작을 공부하고 사상을 성취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실이 북한 전역 좋은 명당에 마치 교회처럼 세워져 북한 인민들을 소위 경건한 마음으로 김일성 말씀 성취와 연구로 세뇌시킴과 함께 수요일 강연회, 교회 속회와 목장 같은 5호 담당제는 기독교를 그대로 북한에 옮겨놓은 느낌으로 비교되어 신앙 초기엔 섬뜩한 마음마저 들었다.

오늘날 세계가 북한 주체사상을 10대 종교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세뇌를 받은 봉수교회 리성숙 전도사였기에 세계를 향해 "과학의 시대에 부활은 절대 믿지 않으며 오직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만 믿는다"는 무식한 사상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의 남북 분단은 정치적 현황이 아닌 영적 갈등이고 영적 싸움터에 한국교회가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길 힘은 오직 복음임을 한국교회가 자각하고 복음통일을 위해 북한과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 2. 북한선교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믿음은 충성을 낳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 이 말은 북한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다. 위대한 수령과 노동당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충성할 수 있고 의심하는 자는 반역자가 된다는 의미다.

북한에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교회 안의 조직과 흡사한 조직을 국가가 만들어 놓고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한다. 조직생활 중 가장 큰 고통은 ‘생활총화’다.

북한 주민들은 매주 1회씩 생활총화를 하는데 이 모임에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고 반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지적한다. 서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간이다.

생활총화를 인도하는 조직위원장은 늘 말머리에 “우리 당은 자신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과오를 묻지 않고 용서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회개운동이다.

속내를 털어놓을 것을 슬며시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존엄이나 북한체제를 비판하거나 불만을 말하면 가차 없이 처벌이 내려진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불신한다.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보복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간부들은 이런 불신과 투쟁을 은근히 유도한다.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인 셈이다.

북한에서 각종 조직생활은 정말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있다. ‘조직생활이 싫어 탈북했는데 또 신앙조직에 몸담고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다. 탈북민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질책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패와 배신을 혹독하게 경험한 이



〈강원도 세포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황해북도여단 근로자들이 세포비서(오른쪽)의 진행에 따라 자기 반성과 상호 비판을 하는 생활총화에 참가하고 있다. (출처: 노동신문)〉

들에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는 탈북민들에게 탈북 목회자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준다. “북한에서 배웠던 ‘믿음은 충성을 넣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는 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꼭 필요한 명언입니다.”라고...

### 3. 북한동포들의 신앙의 자유가 바로 복음통일이다.

요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에게 통곡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싸인을 주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특히 북한문제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몸 에 기생하는 암과 같은 존재이기에 정신차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왔음을 잊지 말고 북한동포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한국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라는 영적 계시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 이 사랑이라는 절대적 신앙의 무기를 강도만난 북한동포들과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약탈한 강도 북한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안과 전략도 없이 맹목적인 북한선교를 해 온 결정적 오점을 돌

아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사랑의 신앙적 근거는 약하고 소외된 자, 특히 힘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이 주신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권리를 빼앗기고 사는 약한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라고 강조 하는 말씀이지 악의 축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마귀들과 싸워 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냉철한 영적 안목으로 북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복음통일의 대안과 전략으로 북한동포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요즘 한반도에 마치 평화의 봄이 온것처럼 나팔을 불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강도만난 자의 이웃인가? 강도의 이웃인가를 반성해 본다.

지난시기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을 돕다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으신 임현수 목사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시선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주민의 97%가 우리 동족이고 골육이고 형제다. 그들은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정권 수호자들은 ‘악’을 떠받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도 싸워야 할 대상이지 타협 대상이 아니다. 이를 혼동하면 북·미 대화는 물론 비핵화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임현수목사 자

신도 북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마냥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로 정신없이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땅에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동포들에게 빵보다 영적양식을 보내 주어야 할 때이다. 통일된 후보다 지금이 북한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다.

지구상에 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지금 북한동포들이 평생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 준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철저히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을 찾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한국교회는 놓치지 말고 북한동포들을 살려야 한다.

북한복음화가 곧 통일의 강력한 무기이고 대안이다. 지금 이 민족의 통일 키는 한국교회 손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가 저들을 복음으로 깨우면 복음안에서 깨어난 북한동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일어나 김정은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 그 자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통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 주셨다. 남과 북의 평화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만에서 깨어나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두손 들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질되지 않게 교회의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서 세상을 향하여, 저 북한동포들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15)

●  
마리아

집안일만 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쳇바퀴 돌 듯 살았다. 고부갈등은 완화될 기미가 안 보였고 아이들은 나를 여전히 어색해했다. 생활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바깥일을 찾아 나섰다. 당시 내가 살던 곳 근처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는데, 밤에 몰래 광산에서 돌을 한 무더기를 사서 금을 추출하는 일이 비록 불법이긴 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꽤 통용되던 부업이었다. 이 일을 해보기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는 어느 날 밤 시누이와 함께 밤에 작업을 하러 나갔다.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밤 9시쯤에 집을 떠나 세 시간을 걸어 산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부터 자전거를 빌려서 한 시간 정도를 더 타고 이동했다. 더 이상 자전거를 끌고가기 힘든 산 아래 동네에 도착하여 3천원을 주고 자전거를 맡기고 그곳에서부터 또 다시 도보로 한 시간은 걸어서 광산 입구에 도착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일감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몇몇 줄 서있었다. 무거운 돌짐을 한 무더기 받아 어깨에 매었는데 30키로 정도였다. 쌀자루 30키로를 지는 것과 돌

무더기 30키로를 지는 것은 또 달랐다. 캄캄한 한밤 중에 무거운 돌을 지고 걸어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야맹증을 앓고 있는 나는 거의 장님에 가까웠다. 순찰대가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지역이다보니 손전등이 있어도 키지를 못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움푹 파여있는 웅덩이나 얼음 빙판이 있을 적에는 영락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들 이미 저 멀리 가있는데 나는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스무 걸음 걷고, 스무 걸음 만큼 쉬면서 시간이 하염없이 걸렸다. 무거운 돌을 지고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까지 거의 기어가다 싶게 이동한 후 맡겨놓은 자전거를 찾아 뒷자석에 돌 무더기를 올려놓았다. 돌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자전거 앞 축이 들려서 타지도 못하게 되어 찢찢매다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그 무거운 돌 자전거를 집까지 끌고 갔다. 다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자전거를 씹씹 잘 타고 집에 가버린 사이 나와 시누이만 덩그러니 어둠 속에서 킁킁 땀다. 내 한 몸 부지하기도 힘든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무거운 자전거를 이끌고 강산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자니 온 몸이 땀에 젖었고 숨은 턱에 닿았다. 남들이 다 자는 밤, 생존을 위해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용을 쓰며 길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는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서러움을 넘어 화가 나기까지 했다. 세상

이 잠든 한밤중에 출발한 이 여정은 동틀 무렵에 끝이 났다.

눈을 잠깐 붙이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삭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얼얼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새벽까지 힘들게 이고 진 돌무더기를 꺼내 아침 땃바람부터 온 가족이 달려들어 작업을 시작했다. 30키로의 큰 돌덩이를 잘게 쪼갠 후 기계에 넣으면 기계 속의 시약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돌가루 안의 금가루를 추출하는 방식이었다. 어젯밤부터 하루종일 고생했는데 얻은 금가루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실망하며 다짐했으나 딱히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없어 매년 안보이는 눈으로 밤에 돌덩이를 얻어오곤 했다.

당시 시집식구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시동생네 집은 우리보다 생활이 더 어려웠다. 우리는 키클 가축이라도 있었으나 그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야밤에 돌덩이 가져오는 것으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 그쪽 식구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 집 사람들은 그런 생활에 어떻게든 적응해가며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해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었더라면’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세상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괜히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왔기에 지금 생활이 더 힘든 것 같다고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점점 스스로가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철창 속에 꼼꼼 묶여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남편이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많아 그 동네에서 여러가지로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택수색을 하면 꼭 우리집 먼저 검열이 들어왔다. 하루는 여느날처럼 열심히 얻어온 돌덩이를 잘게 쪼개며 기계를 돌리고 있을 무렵 담당 형사가 들이닥쳤다. 집안에 있는 기계를 보더니 다짜고짜 불법이라며 기계를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금가루를 추출하는 이 기계는 어느새 우리 집의 중요한 생계 유지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담당형사 앞에서 나는 “당신이 저것을 빼앗는 그 순간 나는 이 시약을 마시고 죽을 것이다”라며 이판사판으로 큰소리쳤다. “우리집은 저 기계로 생존하고 애들 밥 먹이고 공부 시킨다. 내가 이 땅에서 차라리 조그만 불법을 해서라도 여기서 살아남는 게 다시 돈 벌겠다고 중국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는 그냥 돌아가버렸다. 정작 우리 남편은 그 담당 형사 앞에서 한 마디 저항도 못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나라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안간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나라에 아주 큰 일이 터진 모양이었다.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었다. 온 나라가 혼란했으며 곧 추모식이 요란하게 벌어졌다.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어떻게 추도 모임을 하나 걱정이 먼저 들었다. 김일성 사망 때에는 한여름이라 바깥에서 추모식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 추모식은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각 마을 회관이 애도관으로 바뀌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줄지어서 애도관에 들렀다. 큰 가정집을 빌려서 티비를 켜놓고 전기와 불을 켜서 생방송으로 추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기 싫었지만 우리 가정도 당연히 참석해야했



다. 근처에 사는 시집 식구들도 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울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나와 남편은 울지 않았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장군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울지 않았는가?”하고 물으니 남편은 “내가 한번도 뵈 적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정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덕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정이 있어 울겠나. 울어야 한다면 그 사람 덕을 많이 본 평양 시민들이나 울겠다.”고 대답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북한의 이상화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가족이고 부부이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밖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내놓지 못할 말이었다.

다사다난한 겨울이 가고 북조선에도 봄이 왔다.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난 시점이라 신분증을 새로 신청해서 만들었다. 교화소에 들어갈 적에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더니 이제 서야 새로 태어난 사람마냥 신규로 인민이 되었다는 듯이 공민권을 받으니 왠지 기쁘지가 않고 서글프게 우스웠다. 시민권이 있어도 밤 9시가 지나면 내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다. 공민이 되어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었다.

나는 가끔씩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옆 동네에 사는 출소한 교도소 동기생들을 찾아가 회포를 풀었다. 우리끼리의 인사는 “그동안 잘 있었니?”가 아니라 “왜 아직 안갔어?”였다. 우리들끼리 만나면 얘기가 잘 통했다.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나라의 수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솔직하게 어떤 점이 옳고 그른지를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덕에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하면서 속에 화병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 감옥 생활을 경험했던 교화소 동기생들이기에 서로 마음이 통했다.

하지만 동기생들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있던 동네 자체가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했다. 그 근처에 광산이 있는 지역이라 유난히 순찰대도 많았다. 중국으로 도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밤에는 암묵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있었으며 단속에 걸리면 신원조회와 몸 수색부터 시작하여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나다니던 골목은 가로등도 없는 산골마을이라 밤에는 아무것도 안보였다. 하루는 집에 돌아가는 밤길에 순찰대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순찰대원은 으레 그렇듯 별 이유 없이 내 이름과 주소를 물었으나, 나는 순순히 대답해주지 않고 “내 이름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가. 내가 내 마을에서 우리 집 가는데!”라며 너무 완강하게 나오자 순찰대원은 순간 당황했다. 당시에는 돌덩이를 이고 다니면서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요, 그저 같은 지역 옆동네 친구집에 다녀가는 것뿐인데도 이러한 일말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사회 자체가 너무 갑갑하게 느껴졌다. 또 한 번은 집에 돌아가던 나를 붙잡고는 다짜고 짜 험한 말을 해대며 몰아붙이길래 한 술 더 떠서 “왜 간첩은 못 잡고 애매한 시골 아낙네를 잡고 난리를 치냐”며 화를 내었더니 그냥 돌아갔다. 어떤 날은 친구네 집에서 자는데 숙박검열에 걸려 분주소(파출소)에 밤새 갇혀있었다. 분주소에서 나오면서 내 마음은 이 나라의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만 강하게 사무쳤다.

동네 간 이동에 대한 감시의 눈은 내가 옆동네에 갈 때만 겨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보위지도원이 찾아와서는 내가 옆동네에 너무 자주 다닌다며 경고를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조국의 푸른 대지를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뒤흔들며 두 발로 밟지 못하는가! 내가 밟으면 안되는 땅이라도 되는가! 나는 짓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가!”하고 따져물었다. 보위지도원은 나에게 딱히 옆동네가서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가정주부로서 시장도 봐오고 이것저것 어디 할 일이 적은가!”라며 대꾸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내가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집요한 감시와 보고를 통해 뒷선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북한 사회 자체가 출소 이후든 탈북 전이든 나를 비롯한 인민들을 따듯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다. 특히 출소한 다음에는 항상 감시가 따랐고 위압 속에 살았다.

이러한 숨막히는 통제와 감시가 또 한번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다. 내가 고향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다. 여름 즈음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 거진 십여년만에 방문하게 되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찾은 고향이기에 시간을 내어 열흘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온 동네가 발각 뒤집혀 나를 찾고자 수소문하고 있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보위직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어디를, 왜 갔는지 따졌다고 했다. 얼마나 요란을 떨면서 조사를 했는지 남편이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중국에는 내가 탈북하여 중국에 간 것 아니



〈김정일 사망 당시 울부짖는 북한 주민들 (출처: 로이터)〉

냐며 거의 취조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옆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별안간 조사원이 방문하여 나의 향방에 대해 끝없이 캐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 탈북했던거 아니냐”라며 나의 안부를 물었다.

정말 서글프고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시시콜콜 나의 일거일동을 다 살피는 이 사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 곳은 겉으로는 청정지역인데 나는 마치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 같구나...” 하고 생각 하곤 했다. 중국 사회에서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잡혀들어오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인지 옆동네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저를 한국 땅으로, 자유로운 세계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것이 몇 년 전 나의 서글픈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 줄로 굳게 믿고 감사 드린다.

##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핵 억제력 강화 논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정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제7기 제3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핵전쟁 억제력'이 다시 등장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지속 개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 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 북한이 국가적 봉쇄상태 속에서 공안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역할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주재로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견제함을 과시했다. 지난 5월 1일 순천린 비료공장 준공식 이후 22일만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연단 아래에 북한의 고위군부인사들은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란 지휘봉을 들고 연단 한쪽에 준비된 대형 TV 스크린 속의 그림을 짚으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종합)

## + 통일부 “북, 곡물 86만 톤 부족 추정”, 러시아 “북에 밀 2만 5천톤 지원”.

한국 정부는 5월 19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곡물 수입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1월 신형 코로나 유입 방지를 위해 일찌감치 북중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곡물 수입 등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북한의 한해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에서 한국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 464만 톤을 뺀 수치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현지시간으로 5월 18일 '신형 코로나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등 47개국에서 1억8천3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신형 코로나 때문에 농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 전파 우려로 국가 간 국경이 폐쇄되면서 세계 물류망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분석이다.

한편 러시아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밀 2만 5천여톤을 지원했다. 북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5월 14일 러시아 밀이 들어온 북한 남포항을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산 밀 2만 5천



〈작년 6월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행사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프라빈 아그라발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 대표〉

여톤을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에 의해 러시아 노보로시이스크에서 남포항까지 운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화물선 승무원들이 격리되고 항구 내 별도 구역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달 26일이나 27일에 하역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당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을 위해 인도주의 목적으로 밀 4천톤을 지원했다.

## + 북한, 우리 군 비무장지대 GP에 총격... 남측 피해 없어.



한국 군 당국은 5월 3일 오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총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 41분경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이번 총격의 경위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5월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하여 탄흔과 탄두가 발견된 한국군 GP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유엔사는 이번 GP총격이 북한 군의 우발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격 당시 우리 군이 북측 GP를 향해 고정해 놓은 K-6 중기관총이 기능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K-3기관총으로 1차 대응을 한 뒤 다른 곳에 있는 K-6를 전방으로 옮겨 2차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K-6 중기관총은 월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부대 간 이동이 어려워져 장비 정비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상태 확인 점검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 + 북한, 사실상 법률시장 개방 움직임... 법적 인프라 구축 본격화

북한이 중국과 한국 등 외국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허용하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로펌과의 합동 법률사무소 개소도 허용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김정은 체제에서 외자유치 확대 및 무역증진 방안을 고심해온 북한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중재를 포함한 법적 인프라 구축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월 5일 국제법조계에 따르면, A중국 대형로펌은 북한 최대 B로펌과 공동으로 평양에 합동 법률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 법조계에 따르면 A로펌 외에도 다수의 중국계 글로벌 로펌들이 북한과 접촉 중이며, 한국에서도 상당수 로펌들이 2018년부터 중국·북한 측과 물밑 접촉을 진행해왔다.

평양 법률사무소 개소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로펌들은 평양에 진출한 유일한 외국로펌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에 있어서도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이 북한에 법률사무소를 낸 사례는 있었지만 현재 철수한 상태다.

영국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서 근무하던 마이클 헤이(Michael Hay)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2001년 평양에 외국인 1호 법률사무소인 'HK&A(Hay, Kalb and Associate)'를 설립하고 15년간 활동했다. 'HK&A'는 미국·러시아·유럽·동남아시아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대북 투자 컨설팅과 비자발급 대행 업무 등을 주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집트 대기업인 오라스콤 그룹 등



비서구권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각종 지도층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때 연결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변호사는 2016년 북한에서 철수한 뒤 법무법인 총정에 합류해 일하다 최근 별세했다.

중국로펌들은 최근 북한 대외경제성,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 등과 함께 중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며 북한과의 접촉점을 늘려왔다. 중국이 주도해 지난해 말 출범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가 북한 측의 참여를 비공개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미·중 국제 통상 및 무역분쟁은 각종 국제규제와 정부조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전(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여론전과 심리전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법제정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북한도 체계적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를 위해 이같은 기초를 일부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중국 변호사는 "북한이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작업에도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법률신문, 5월 18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기독교와 통일 그리고 북한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저자: 안인섭 외 11명

출판사: (주) 박영사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가격: 17,000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는 가운데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선교 현장도 코로나와 이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는 진정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선교와 통일의 비전은 계속 성취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 북한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공부의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기독교와 통일 그리고 북한’은 북한 관련 기독교 전문가 및 학자들 12명이 각 전문 분야에서 기독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장점으로는 먼저 폭넓은 내용을 담백하게 담아낸 책의 구성에 있다. 역사, 신학, 정치, 경제, 교육, 대외정책, 군사, 종교, 통일 등 각 챕터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고 상당한 분량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요약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각 챕터를 담당한 저자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된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정제되고 핵심을 짚어내는 서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책 두께는 줄이면서 알차고 전문성이 있는 구성을 잘 이뤄내어 책을 접하는 보통의 독자의 부담을 적게 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각 챕터 앞에 QR코드로

볼만한 뉴스나 영상 링크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 목표와 요약도 싣고 있어서 일종의 교재로도 활용하기 좋게 구성해 놓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분석도 장점이다. 통일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나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 등 세상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적 관점의 연구 시도가 있고, 또 그 외의 내용들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단순히 북한을 알아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적 관점에서 북한을 조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아쉽거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학자 출신 저자들이 주가 되다 보니 그렇겠지만 통계를 제시하거나 북한의 현황을 기술함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떤 경우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나 북한의 법령, 제도 중심으로 기술되기도 하고, 추정치를 제시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학문적 엄밀성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술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투명성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보니 오히려 현실 반영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 북한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통계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구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적인 확인, 연구 활동을 실시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학문적 보수성에 바탕을 둔 접근은 북한의 실제 현실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어떤 내용은 그 분야를 맡은 저자의 학문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인다. 기독교적으

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볼 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된 챕터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논쟁점으로 삼기 보다는 책의 특성으로 감안하고 필요한 유익을 얻어가면 좋을 것이다.

북한, 통일 같은 주제가 단순히 세상의 관점 위주로 논의되고 교회도 이를 따라가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먼저 관련 이슈에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선지자적 위치, 더 나아가 선도적 위치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먼저 복음적으로 통일과 북한을 이해하고 비전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전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자료와 책자가 출판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소개한 책 ‘기독교와 통일 그리고 북한’ 역시 여러 학자들의 귀한 노력이 담긴 책으로서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소개해본다.

1. 코로나의 피해가 점차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2차 전파의 피해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중국도 지린성 수란시 일대에서 추가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도시 일대를 봉쇄하고 동북삼성 일대에 방역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도 5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국경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기독교 의료 단체와 활동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한 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북한 주민들의 경제문제를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북한지역에 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봄철 가뭄으로 수확량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모내기가 잘 진행되고 추수까지 이어져 식량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한 4월부터 시작된 춘궁기 극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간 코로나 방역으로 외부와의 교역도 상당한 제약을 받은 상황에서 식량 부족은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생계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민들, 그리고 박해로 인해 추방당했거나 적대계층으로 취급되어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성도들의 혈연과 후손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고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한 지원 및 구제 관련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3. 제 3국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강화된 통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후 선교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동하려고 할 때 전에 비해 매우 강화된 검문과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거주 및 비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심각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강화된 통제 속에 선교 사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제3국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 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4.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혼란 등은 견고해 보이는 북한이지만 뜻밖의 사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예측 밖의 상황에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소에 선교와 구제를 위한 바탕이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발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인내하며 선교에 열정을 회복하길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역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루 속히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도합시다. 북한에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국경통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라디오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 및 탈북 성도들이 참여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1일

#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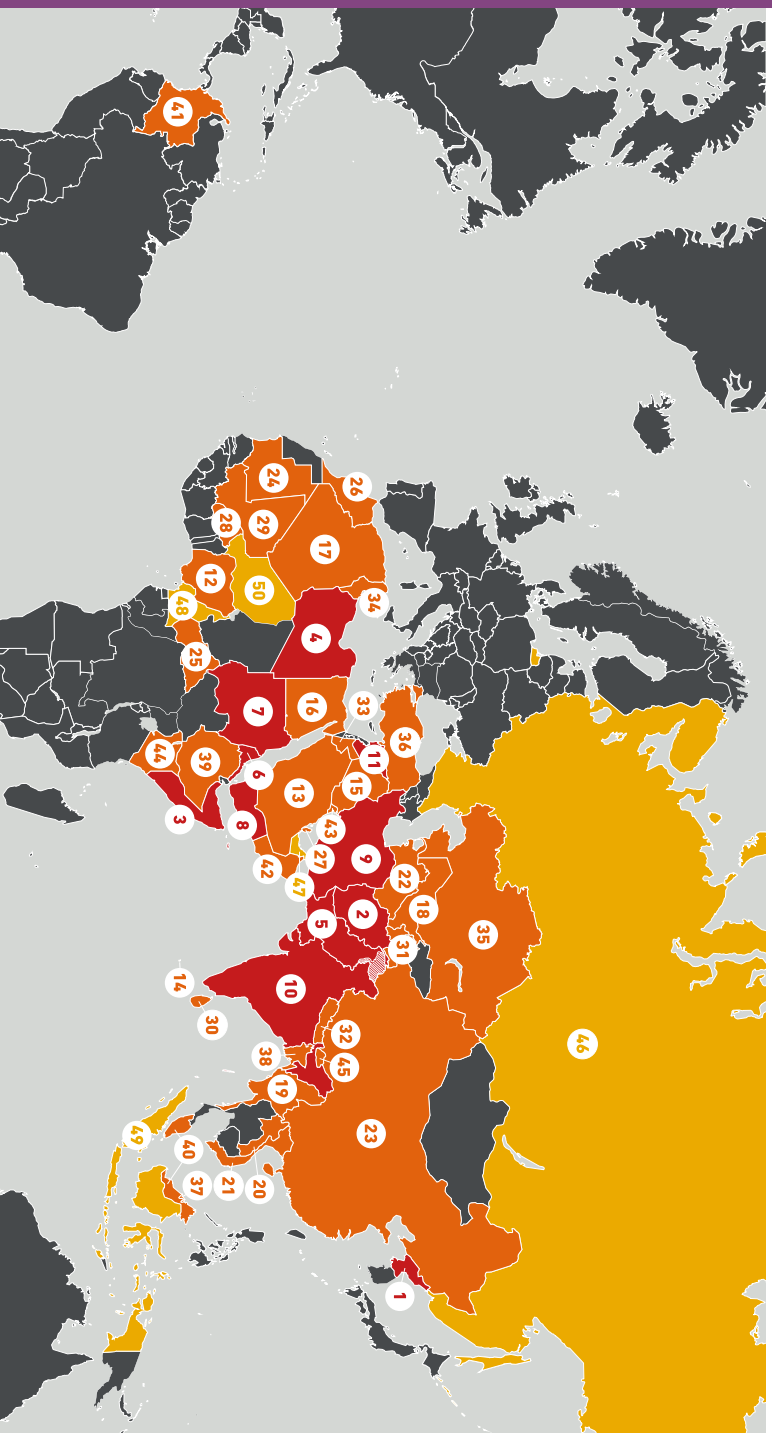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가니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소말리아        |
| 6 에리트레아      | 33 타지키스탄       |
| 7 수단         | 34 니제르         |
| 8 예멘         | 35 오만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터키          |
| 12 니제리아      | 39 브라질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몰디브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랍트       | 43 콜롬비아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쿠웨이트        |
| 19 미얀마       | 46 케냐          |
| 20 라오스       | 47 부탄          |
| 21 베트남       | 48 라시안양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아랍에미리트(UAE) |
| 23 중국        | 50 카메룬         |
| 24 모리타니아     | 51 인도네시아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2 니제르         |

##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찬의 박해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목록이고, 동화(同化)와 신변(身邊)을 지키는 것보다, 오픈도어 문화(文化)가 모든 국가의 원인으로 부러 오는 사회적 대안(對案)을 권고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 이용자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복제(複製)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개인과 교회(교회) 사회 생활(生活)을 할 때(때)에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를 할 때(때)가 보장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방법과 자료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공개를 받습니다. WW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베쉬는 스리랑카 바터칼로이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자살폭탄테러범이 시온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성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회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생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람 하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회와 똑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터전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100%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팔미암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